

# ESG

## Weekly Focus



Economist/Asset Allocation 방인성\_02)368-6145\_isbang@eugenefn.com

### E (Environment)

#### 주간 국내 기사

- 美 2050년 연방정부 탄소중립...2035년까지 전기차로 전면교체 *매일경제*
- 두산,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참여...수전해 기술 확보 *이데일리*
- 2차전지용 '관세 코드' 만든다... 글로벌 원자재 리스크 대응 *파이낸셜뉴스*
- "집이 춥네요" 알아서 햇빛 더 모아주는 스마트유리...SK가 1000억원 투자 *매일경제*
- 쓰레기가 명품으로... "폐어망서 재생나일론 추출, 가격-품질 잡았죠" *서울경제*
- "내 아이도 친환경 옷 입어야죠"...키즈라인으로 뺀 친환경 바람 *이코노미스트*
- 식량사업 넓히는 포스코인터, 싱가포르에 지주회사 세운다 *서울경제*
- SK가스, 청록수소 기술 보유...美 스타트업 시제로에 투자 *한국경제*
- '친환경 굿즈' 대세로 뜬다 *디지털타임스*

### G (Governance)

#### 주간 국내 기사

- 셀트리온그룹 지주사 합병 완료, 통합지주사 체제 본격 출범 *이코노미스트*
-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가전·모바일 부문 통합 2인 대표 체제로 *경향신문*
- 카카오모빌리티, 주차장 운영업체 GS파크24 650억원에 인수 *조선비즈*
- 포스코 지배구조 개편에 쏠린 눈...주가 향방은 *뉴시스*
- 손태승 회장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투명한 지배구조로 금융서비스 제공" *이투데이*
- GS에너지, GS파워 지분 49% IMM에 1조 매각 *매일경제*
- 세아그룹 '3세 경영' 본궤도... 이태성-이주성 사장 승진 *디지털타임스*
- LG엔솔 공모가 최대 30만원... '시총 70조' 상장절차 본격화 *한국일보*
- 넷마블, 카카오뱅크 지분 모두 판다..5143억 *파이낸셜뉴스*

### S (Social)

#### 주간 국내 기사

- 카카오, OECD에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사례 소개 *매일경제*
- "주 52시간제에...일감 늘어도 일 못해요" *서울경제*
- 중기부 '불공정거래 꼼짝마'...수탁-위탁거래 조사 실시 *아이뉴스24*
- 공정위, 7개 TV홈쇼핑사 '유통 갑질'에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 *디지털타임스*
- 샤넬코리아 노조, 17일부터 무기한 파업... '임금체불' 고발도 *이코노미스트*
- 패러다임 전환기에 '강성 노조' 득세...완성차, 노사관계 험로 *이데일리*
- 노동이사제 입법 논의 조짐에 경영계 "도입 중단" 강력 요청 *이코노미스트*
- 재계 전면에 배치되는 3040 CEO-임원들...실리콘밸리식 인사 확산 *뉴시스*
- 부회장님 승진 뒤엔 ESG '열공' 있었네 *매일경제*

### 연기금 & 스튜어드십 코드

#### 주간 국내 기사

- 국민연금 "국내 ESG 정보공시 미흡... 평가체계 개선할 것" *머니투데이*
- 금융사 녹색금융 핸드북 초안 '기후 리스크' 척도 제시 *더벨*
- "국내 30대 그룹 '환경 투자'...2030년까지 153조원 쏟는다" *경향신문*
- 글로벌 기관 투자자 74% "ESG 성과 저조한 기업에 투자 회수할 것" *한국세정신문*
- ESG펀드부터 액티브ETF까지...내년 핫한 펀드는? *머니투데이*
- "ESG 공시 기준 단일화 불가피...모든 기업 적용 여부는 더 고민해야" *조선비즈*
- 鄭·具·崔·홍·울 6조 베팅...사회책임 투자 '문고 더블로' *서울경제*
- 최태원, 발렌베리家 투자사와 ESG 협력 *파이낸셜뉴스*
- FN가이드, ESG센터 '전면에'...전문성 자신 *더벨*

## ESG FOCUS UPDATES

## ESG 경영에 대한 이사회 역할 확대

- 자본시장연구원 21.12.06

A

-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기업 이사회 역할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감독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ESG 관련 전문가 선임이 요구됨
- 해외 여러 기업에서는 이사회 책임 강화 및 역할 확대의 기조에 따라 별도로 ESG 경영을 관리·감독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이사회 내 ESG 전문가를 선임하는 추세
-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과 이에 대한 이사회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ESG 경영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기구는 기업별로 상이하지만 전문위원회의 설치를 선호하는 추세임
- S&P500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조사에서는 41%가 이사회추천위원회 및 지배구조 위원회, 10%는 ESG/지속가능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 여러 기업에서는 ESG와 관련된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임
- 골드만삭스는 주요 사업부문에 ESG를 다루는 지속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무라 역시 ESG 위원회와 산하에 4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ESG 경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함
- 글로벌 IT 기업인 인텔도 이사회 내 지배구조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2회 이상 ESG 성과보고서를 경영진으로부터 제출 받고 검토하도록 함
- 일본의 미쓰비시상사는 기후변화와 관련 전략 및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경영진의 결정을 이사회가 보고받고 감독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함
- 캐나다에서도 TSX60 기업을 분석한 결과, ESG 위원회 19개 기업, 지배구조위원회 16개 기업 등으로 60개 기업 중 52개 기업에 전문위원회 혹은 ESG경영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 또한 ESG 전문위원회 설치와 함께 ESG 전문가를 선임하여 ESG 경영에 대한 자문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함
- 국내에서도 이사회 내 ESG 관련 경영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SG 전문가 선임과 참여도를 제고하여 ESG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
- 현재 국내에서는 ESG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이 기존의 이사회 구성원인 경우가 많고 전문성에 관해서도 재무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ESG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의 선임이 요구됨

## CO2 광물탄산화 기술개발 동향 및 시사점

- KDB 미래전략연구소 21.12.06

E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배출된 CO2를 흡수하여 처리하는 직접적인 탄소 감축 수단으로 CCUS 기술 도입 및 적용 필요성이 부각됨
- CCU 기술은 수소산업과의 연계(블루수소 대량생산 등) 및 활용, 친환경 자원순환 측면 등에서 잠재력이 높은 탄소중립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70 글로벌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CCUS 기술의 기여도를 총 감축량의 15% 수준으로 제시
- 전 세계적으로 CCU 기술은 대부분 응용연구 수준으로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국가적인 규모의 중장기 R&D 투자가 필요함
- CCU 분야는 CCS(포집된 CO2를 심부지층 등에 저장)에 비해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CCU 기술로 생산된 제품은 아직 생산단가가 높아 기업 참여 유인이 부족함
- EU, 미국 등은 최근 CCU 투자를 확대 중이며,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기술 혁신 로드맵 및 추진전략 수립(21년), 산업계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중임
- 다탄소배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여건상 포집된 CO2의 직접적인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CO2 광물탄산화' 기술 확립 및 상용화 주력할 필요성이 있음
- 국내 주력산업이자 탄소 배출량 많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업계 저탄소 공정 전환 촉진 및 이에 따른 산업·노동계·지역 경제 충격 완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광물탄산화 기술로 생산된 탄산염은 건설소재나 화학제품(충진·포장재), 시멘트·콘크리트 대체제(반응경화시멘트, 콘크리트혼합물 등)로 활용 가능함
- 우리나라의 'CO2 광물탄산화' 기술 확보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발굴과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함
- 높은 수준의 응용·최적화 기술 보유한 우리 산업계의 기술역량과 탄소중립의 당위성 감안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70~90% 수준)는 충분히 도전 가능한 과제임

## 조직 내 성(性) 다양성과 기후변화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1.12.06

S

- BIS는 조직 내 여성 관리자 비중과 CO2배출량의 반비례 관계 연구 결과를 발표함. 해당 논문은 결정을 내리는(take decisions) 이사회가 아닌 결정을 실행(implement the decisions) 하는 관리자 수준에서 여성 비중과 CO2 배출량의 인과 관계를 최초 분석함
- 관리자는 실질적으로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선택 재량권을 가지며, 여성은 태생적으로 남성보다 친환경적 성향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을 토대로 함
- 24개 선진국, 9개 업권, 1,951개 상장기업의 10년간(2009~2019년) 패널데이터와 실제 기업단위의 세분화된 CO2 배출량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 관리자가 1%p 증가할 때 CO2 배출량은 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녹색태도(green attitude)'가 조직 내 전략 실행시 환경적 영향을 더 잘 반영하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CO2 배출량 감소에 기여함
- 성의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여성의 공감 행동, 사회적 감수성, 위험 회피 성향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며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여성 장관 비중이나 여성의 시민사회단체 참여도가 높은 국가에서 더 강한 상호작용을 보임. 여성들이 정치 또는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조직보다 넓은 차원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환경의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조직 내 여성 관리자의 업무를 용이하게 함
- 제도적 특성과 달리 여성 관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인 문화 또는 종교적 요인의 영향력은 제한적임
- 국가 내 주된 노동자의 성(性)과 카톨릭교도 비율이 여성 관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여전히 '유리천장 지수'에서 9년째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함.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지표를 보면, 2020년 기준 국내 200대 상장사 등기임원 중 여성은 65명(4.9%)뿐이며 여성 임원이 0명인 기업도 73%에 달함
- 여성 중간관리자 비율은 15.4%로 OECD 평균(33.2%)의 절반 이하 수준임. 따라서 경영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조직내 여성 인재의 역할 확대 및 공정한 승진 기회 부여 등을 통한 여성 인력의 경영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국내 스마트시티 현황과 시사점

- KDB 미래전략연구소 21.12.09

A

- 스마트시티는 ICT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도시 모델로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고용 창출, 해외 수출 등으로 경제 성장 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개도국까지 스마트시티가 확산되면서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물리적 도시 시설이 IoT 등 ICT 기술과 접목되어 효율적 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로 정의됨
- 1990년대 중반 통신사가 주도한 디지털시티를 그 기원으로 보며, 5G·AI·빅데이터 등 ICT 기술 발전과 각국 정부의 정책적 추진, 글로벌 기업의 참여로 스마트시티의 수준이 고도화되고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 신흥국까지 도시혁신 모델로 스마트시티 추진
- 한국은 2000년대 초반 한국형 스마트시티인 U-City 사업을 추진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고 통신 인프라 확대 등 성과는 있었음
- 그러나 단편적인 공공서비스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정책 변경으로 2014년부터 사업규모가 급격히 축소되면서 수년간 소강상태를 겪었음
- 2017년부터 스마트시티의 잠재력에 주목한 정부가 스마트시티 고도화 및 확산을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함으로써 활력을 회복하고 전국적으로 67개 사업이 진행 중임
- 인천경제자유구역, 서울시 마곡지구 등 U-City 사업으로 조성된 스마트시티의 고도화와 세종시와 부산시에서 스마트시티의 모범이 될 국가 시범도시 사업이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국내 스마트시티는 U-City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나 U-City의 한계 극복에 초점을 둔 스마트시티 정책으로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은 ICT 기술력이 주요국 대비 취약한 편이나 우수한 통신 인프라와 데이터 수집에 유리한 대도시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여 체감서비스와 세계적 성공모델을 발굴해야 함
- 국내 스마트시티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임. 스마트시티 고도화는 많은 시도와 시행착오가 필요하며 이를 감내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적 지원 필요함

## A

## 벤처캐피탈(VC) 업계의 ESG 대응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1.12.06

- 2010년 이후 연구에 따르면 ESG 성과가 높은 기업의 재무 실적 또한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은 ESG 원칙에 따라 우수한 성과를 거둔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가장 높았음
- 전 세계적으로 100조 달러 이상의 자산이 ESG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VC의 경우 이러한 기류에 뒤처지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임
-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덕적, 윤리적, 법적인 부분을 간과하는 창업 문화를 보유함
- 최근 수 십년 동안 창업자와 투자자들은 사회적 비용에 관계없이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추진되는 빠른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춤
- VC 업계의 대부분이 남성 엘리트 중심으로 다양성이 낮음. 벤처캐피탈리스트 중 40%는 하버드와 스탠포드 출신이며, 파트너 중 10%만이 여성, 1%만이 흑인임. 그러나 시장의 변화로 인해 투자자들은 ESG 원칙을 적용하여 투자를 시행하고 있고 스타트업들은 ESG 성과를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함
- Patagonia와 같은 이익 기업의 빠른 성공과 태도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듯이 소비자들은 윤리적 사업 관행을 더욱 더 중시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창업자들이 ESG 원칙을 고수하고, "미션 중심", "영향력 있는" 또는 "지속 가능한" 회사를 시작하고 있음
- 업스트림에서는 이미 투자 결정 및 포트폴리오 관리에 변화가 있었는데, BlackRock, TPG 및 Bain Capital과 같은 대형 자산 관리자가 임팩트 펀드를 시작했고 ESG 등급과 고려 사항을 투자 관행을 통합하고 있음. 동시에, "Black Lives Matter" 시위는 다양성, 인종 차별, 성차별과 관련된 금융의 노골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함
- 벤처 캐피탈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DBL 파트너스와 같은 장기 임팩트 주도 펀드의 지속적인 성공으로 미국의 Nismous Ventures 또는 유럽의 Pale Blue Dot과 같은 새롭고 진보적인 펀드에 더 많은 관심과 추종자가 생겨났고, 이와 함께, 'New Boom'이라 불리는 기후에 초점을 맞춘 신생기업의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고 있음
- VC에서 ESG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가 해결되어야 함: (1) ESG 성과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성 결여 (2) ESG 투자 전략에 대한 ESG 데이터 부족 (3) ESG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인식 등을 개선해야 함. VC의 재무 모델은 ESG를 고려하기 위해 통합되고 바뀌어야 할 것임

## A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활용한 ESG 경영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1.12.06

- 기업들은 ESG와 DT(Digital Transformation, 이하 'DT')가 지속가능경영에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 하지만, 상당수 기업에서는 위 두 가지 혁신과제를 Two-track으로 진행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함
- 두 가지 과제 모두 경영방식을 개선하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TWO-TRACK으로 진행된다면 동일 업무에 대해 BPR(Business Process Restructuring, 전사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작업을 중복해서 시행해야 하므로 비효율이 발생하게 됨
- BPR을 위한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별개의 과제로 수행함에 따라 효율성도 감소하기 때문임. DT는 BPR이 수반되므로, 이런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BPR 시 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ESG 요소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EU는 2021년 3월 19일 친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 D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28개국 명의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 유니레버는 2020년 8월 인공지능과 GPS 기술을 활용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여 인도네시아 팜유 생산지의 공급망의 실시간 물류량을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함
-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이 산림을 파괴하지 않고 팜유를 생산하는 업체에만 팜유를 구매하라는 압력을 넣었기 때문으로 알려짐
- 독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도로, 지구를 관측하는 인공위성에서 AI 사용을 촉진해 기후 및 환경 데이터의 연산 집약적인 분석을 통해 환경 변화를 적시에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AI 전략을 발표하여, DT를 통한 친환경 경영의 가능성을 제시함
- (지배구조) 아직까지는 비용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한 내부감사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디지털 감사 기술이 보편적으로 보급되면 내부감사는 점차 사람의 개입을 배제한 실시간 기반의 디지털 감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DT를 활용한 ESG를 하면 그 과정에서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축적되게 되며,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발전을 위한 피드백을 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SG 평가에서도 유용한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GRI Standards(2021) 개정: Universal Standards 를 중심으로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1.12.06

A

- 2021년 GRI Standards가 Universal Standards 중심으로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산업별 분류 기준인 Sector Standards가 새로 추가함
- 주요 개정 사항으로 기업이 중요 주제(Material Topic) 보고 시 해당 주제가 기업에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환경, 사람,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야 함
- 핵심 개념으로 영향, 중요 주제, 실사, 이해관계자를 제시하였으며 신규 원칙 추가 및 기존 원칙 삭제 과정을 통해 기존 10가지에서 8가지 보고 원칙으로 변경함
- Universal Standards 중심으로 개정되었으며 GRI 2-1부터 GRI 2-1까지를, Topic Standards에서는 GRI 3-1, 3-2를 필수 공개해야 함
- Oil and Gas Sector Standards가 발표되었으며, 추후 총 40여 개의 산업별 표준을 발간할 예정임
- GSSB의 이번 GRI 개정본은 비재무정보 관련 국제 가이드언스에 제시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통일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개념 및 속성을 지향함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담당하는 기업 담당자는 2021년 개정본 발간에 따른 보고 방식을 사전에 적용하여 비재무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정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던 이전 기준(Core option과 Comprehensive Option)에서 준수(In accordance with) 한 가지로 통합되면서 필수적으로 공개하거나 비공개 사유 (Reasons for omission)를 설명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가 증가
- 특히, 중요 주제(Material topics)를 결정하는 절차와 보고하는 방법이 기업 중심에서 기업이 미치는 영향(Impact)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기업이 환경, 사회, 사람,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거버넌스 구축, 영향 선정, 주요 KPI 달성 현황 모니터링 등을 수행해야 함
- 산업별 주제가 신설됨에 따라 기업은 자사의 산업분류를 확인하고 중요성 평가 시 Sector Standards를 참고하여 산업에서 중요한 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선별할 수 있음
- 2023년 1월 1일부터 본 표준이 적용되지만 표준 수립 기관인 GSSB는 사전 적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2022년도에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활용 가능함

##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을 위한 기후변화 이니셔티브, SBTi 주요내용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1.12.06

E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회의(21.10.18)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하여 정부에 제안함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 따르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2050년에는 석탄발전을 중단함
- 이에, 에너지 다소비 기업 및 탄소배출량이 높은 국내기업은 단계별 탄소감축 목표 수립과 이행방안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과학적기반 감축목표(SBTi)를 활용하여 신뢰성 높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달성 노력을 기울여야 함
- SBTi는 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의 약자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목표 설정 가이드라인과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음
- SBTi는 2015년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 Initiatives), 세계자연기금(WWF) 등이 참여하여 설립한 국제적 이니셔티브이자 글로벌 민간 협력체임
-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의 전 세계적 목표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2℃ 이내로 제한하기 위하여 과학적 감축목표(SBTi)에 기반한 민간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를 제공함
- SBTi는 Business Ambition for 1.5℃ campaign의 선도적 파트너로서 기업이 과학적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Net-Zero 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음
- SBTi는 민간기업의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Zero-Carbon Economy를 위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 SBTi는 설립 당시, 파리협정의 2℃ 경로에 맞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IPCC(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지구온난화 1.5℃ 특별 보고서 발표 이후, 많은 기업이 지구 온도 1.5℃ 제한을 위한 시나리오에 따른 강력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SBTi는 세계 최초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학적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달성 가능한 수준의 목표인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승인하고 있음
- 글로벌 국가의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민간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음에 따라 과학적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인 SBTi의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UN SDGs 연계 ESG ETF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

17 지구촌 협력



**S D G**

iShares MSCI Global Impact ETF

- MSCI ACWI Index 편입 종목 중 MSCI ESG Research가 규정한 11개 지속가능성 임팩트 카테고리 내 최소 한 개 이상의 항목에 기여하는 사업 영역에서 매출의 50% 이상 발생하는 종목 대상
- 지속가능성 매출 비율에 유동 시가총액 비중을 가중하여 지수 비중을 결정하되 개별 종목 비중 최대 4%, 동일 섹터 비중 최대 20%로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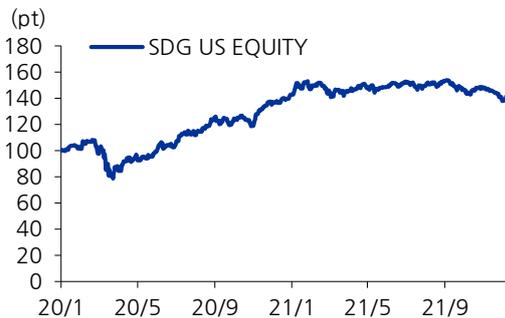
ETF 개요

티커	SDG US EQUITY
상장일	2016-04-22
운용사명	iShares ETFs/USA
총보수율(%)	0.49
기초지수	MSCI ACWI Sustainable Impact Index
가중 방식	Modified Float-Adjusted Cap
주당 가격(달러)	91.7
보유종목 수	154
시가총액(백만달러)	536.3

시총/전략/지역 Broad Market / Blend / Global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2월 10일 기준

주가 추이



기간	1W	1M	3M	YTD	Sharpe(% , 1Y)
수익률	0.9	-4.6	-8.2	-1.8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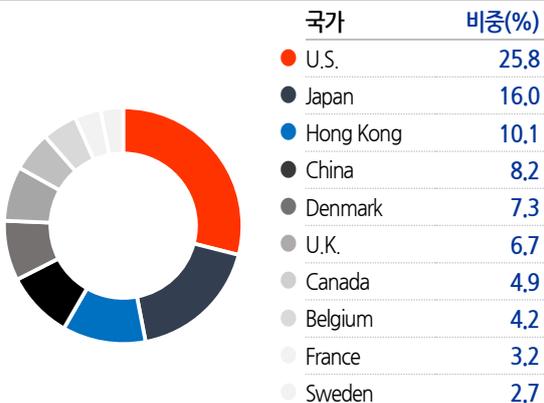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2월 10일 기준  
 주: 2019.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TOP 10 보유 종목

티커	이름	시가총액 (백만달러)	비중 (%)
WFG CN	West Fraser Timber	9,491	4.4
1925 JP	Daiwa House Industry	19,603	4.1
VWS DC	Vestas Wind Systems	31,559	3.3
9020 JP	East Japan Railway Co	23,654	3.3
288 HK	WH Group Ltd	8,061	2.8
NOVOB DC	Novo Nordisk A/S	264,070	2.7
ESSITYB SS	Essity AB	22,533	2.0
2777 HK	Guangzhou R&F	2,002	1.8
1216 TT	Uni-President	14,115	1.8
813 HK	Shimao Group Holdings	3,775	1.7
합계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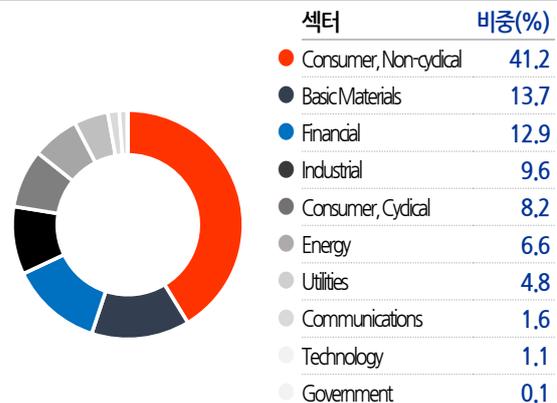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2월 10일 기준

국가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2월 10일 기준

섹터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2월 10일 기준

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

MSCI Global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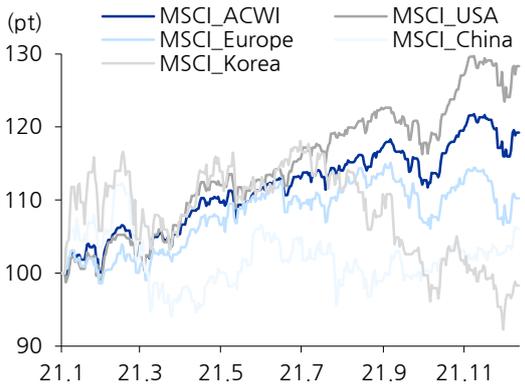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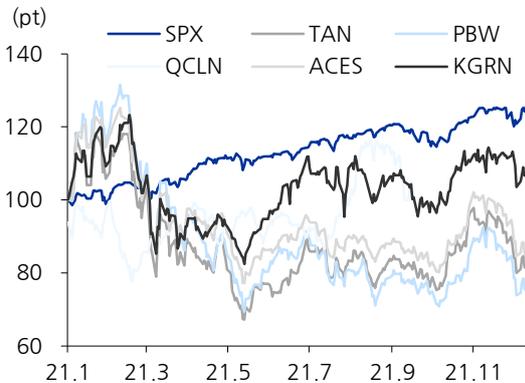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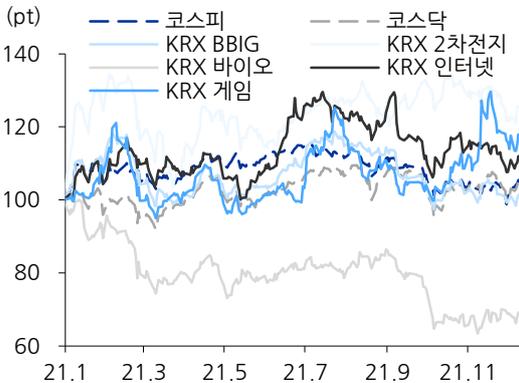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대체 에너지 ETF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K-뉴딜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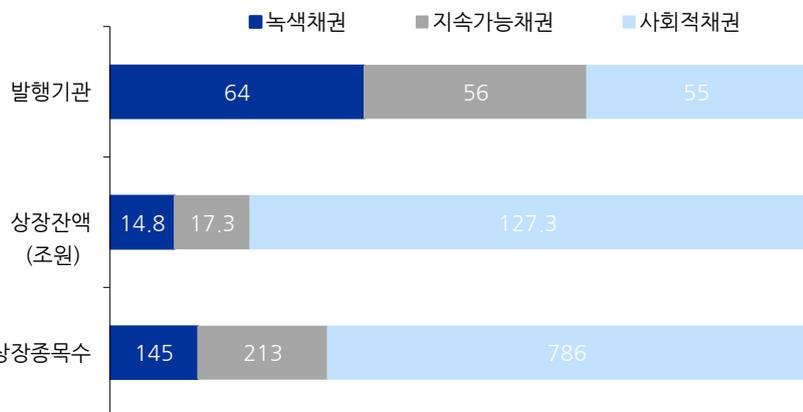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 신규 상장된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채권종류	종목명	상장일	표면이자율	상장잔액 (백만)
지속가능채권	롯데카드 450-1(지)	2021/12/10	2.41000	30,000
지속가능채권	롯데카드 450-2(지)	2021/12/10	2.45400	30,000
지속가능채권	롯데카드 450-3(지)	2021/12/10	2.59100	40,000
사회적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채권제 53 회 3012-09(사)	2021/12/10	2.02800	100,000
사회적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채권제 54 회 5012-09(사)	2021/12/10	2.18800	10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5(1-1)(사)	2021/12/09	1.72000	146,4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5(1-2)(사)	2021/12/09	1.93600	14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5(1-3)(사)	2021/12/09	2.04700	18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5(1-4)(사)	2021/12/09	2.32500	62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5(1-5)(사)	2021/12/09	2.50800	16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5(1-6)(사)	2021/12/09	2.59800	13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5(1-7)(사)	2021/12/09	2.58500	9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5(1-8)(사)	2021/12/09	2.59300	3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5(1-9)(사)	2021/12/09	2.55200	10,000
지속가능채권	JB 우리캐피탈 435-1(지)	2021/12/08	2.33800	30,000
지속가능채권	JB 우리캐피탈 435-2(지)	2021/12/08	2.53500	10,000
지속가능채권	JB 우리캐피탈 435-3(지)	2021/12/08	2.53500	50,000
지속가능채권	JB 우리캐피탈 435-4(지)	2021/12/08	2.54300	10,000
지속가능채권	JB 우리캐피탈 435-5(지)	2021/12/08	2.54500	20,000
지속가능채권	JB 우리캐피탈 435-6(지)	2021/12/08	2.57000	30,000
사회적채권	한국장학재단 21-18(사)	2021/12/08	1.93500	130,000
지속가능채권	메리츠캐피탈 196(지)	2021/12/08	2.75100	60,000
지속가능채권	메리츠캐피탈 195-1(지)	2021/12/07	2.75100	130,000
지속가능채권	메리츠캐피탈 195-2(지)	2021/12/07	2.83800	120,000

자료: SRibond, 유진투자증권

###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상장현황



자료: SRibond, 유진투자증권

주: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3%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7%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09.30 기준)